

세례요한의 신관은 하나님이 하늘꼭대기에 있는 줄 알았다

본문 내용은 기존의 학문과 종교의 모순을 지적하며, 인간이 본래 하나님(신)이었음을 깨닫고 마귀(나라는 의식)를 이겨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핵심 주장을 담고 있다.

1. 기존 학문과 종교의 허구성 비판

이 세상에는 진정한 학문도, 종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물의 실체를 왜곡 없이 말하는 것이 학문인데, 오늘날의 학문은 신(神)이 되는 인간을 동물로 규정하는 등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교 역시 영생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람이 죽어서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며 '죽음'을 당연시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라면 6000년 전 에덴동산(하늘나라)이 마귀에 의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해 사람으로 변했다는 비극적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말씀은 '썩'이 맞아야 합니다. '흠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기록이 진실이 되려면 지금도 흠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만, 현대 유전과학은 오직 유전자에 의해서만 생명이 탄생함을 증명합니다. 돼지 자식은 돼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 소 자식은 소가 나오게 되어 있고 개 자식은 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만 매몰된 기존 종교는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 인간의 실체: "너희는 신들이니 자손자의 아들들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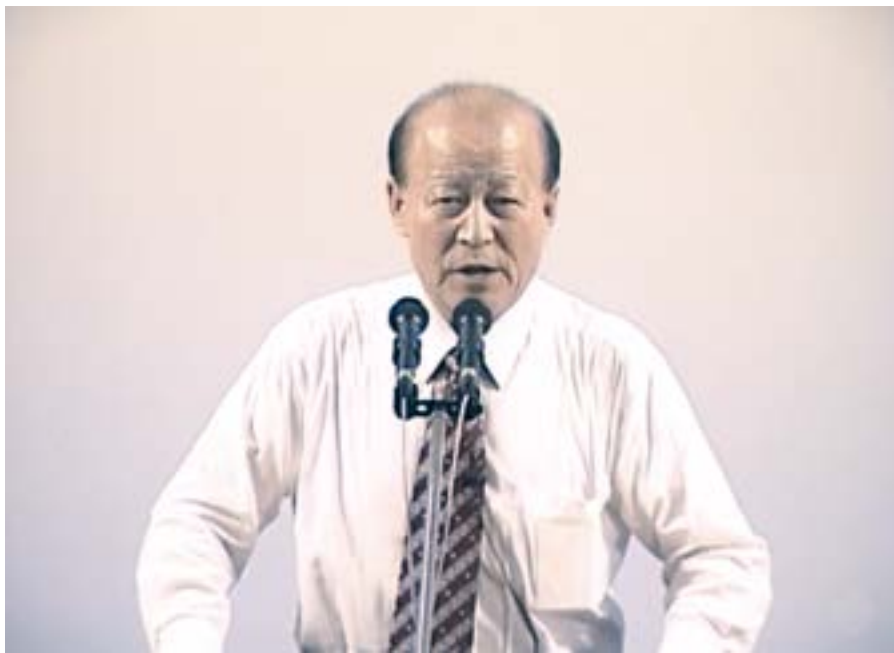
성경 시편 82편 6절, 신명기 14장 1절 등 여러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곧 신(神)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식이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님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상 학문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동물이나 별개의 피조물로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곧 영(靈)이며, 영은 곧 신입니다. 인간은 마음(=영=신)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므로 본질적으로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 예수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독점하고 왜곡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식들이 사망의 굴레에 씌었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성경 여러 군데 영생의 말씀을 써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하는 것은 영생이 있음이라" 성경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디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였음이라"라고 하였고 요한1서 2장 25절에도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도 또한 영생의 말을 했지만, 2천 년 동안 그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영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이견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가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2001년 3월 4일 본부제단 단상에서 이근자 조희성님의 설교 장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똑똑하게 쓰여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예수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말만 지키면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2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가 될 뿐만 아니라 마귀나 거짓말을 하지,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의 하나님의 신이기에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은 에덴동산이 하늘나라이므로 하늘나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서나 살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라는 사람은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예수가 말했던 것입니다. 오류

동에 어떤 건물 창문에다가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난 그걸 볼 적마다 배짱을 잡고 웃었습니다.

3. 예수의 정체와 기독교의 오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구세주가 아니라, 당시 유대 땅을 점령했던 로마 병정 판텔라에 의해 마리아가 겁탈당해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유대 나라의 관헌이었던 마리아의 아버지는 자신의 관직을 보존하기 위해 '성령 잉태설'을 조작했고, 배움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는 천민 계급에 속한 목수 요셉을 골라 마리아의 신랑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 나라의 관헌이라면 이제 그대로 거기에 비등한 관리직에 있는 사람을 사위로 택해서 결혼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듯이 "내 딸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배속에

있는데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말고 어린아이 낳은 다음에 동침하라."라는 얘기를 똑똑한 사람은 곧이 곧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조금 멍청한 놈을 골라서 자신의 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꾸민 말을 믿게 만들어 사위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버젓이 쓰여 있고 또 무슨 천사라고 해서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함에도 기독교는 이를 심부름꾼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천사를 보았다는 성경 기록은 허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너무 허위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은 성경을 다시 보고 또다시 보는 가운데서 예수가 마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신이 불손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손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면 마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공중권세 잡은 신은 악신이다." 악신이 마귀이므로 '공중의 신이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스스로 성령을 받지 않았음을 자백했습니다(마태복음 12장 28절). 그는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을 뿐이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지난 2000년 동안 그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영국의 재판 기록과 『성혈과 성배』 등의 조사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84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과 후손이 프랑스에 실존함이 증명되었으며, 이 사실이 밝혀진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4. 생명과 피, 하나님의 거처 그리고 공중신의 정체

하나님은 저 먼 공중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곧 생명(요한복음 1장 1절)이며, 생명의 근원은 마음(잠언 4장 23절), 마음은 곧 피(레위기 17장 11절)라고 증거합니다. 즉,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하나님이므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반면 공중권세 잡은 신은 마귀(악신)입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행위는 결국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신이 악신이라고 했으니가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를 세례를 줄새 물속에 들어간 예수가 다시 올라올새 공중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 그 소리를 세례요한이 듣고, 당시 세례요한의 신관은 하나님이 하늘꼭대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세례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람들도 다 하늘꼭대기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범람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있다고 그림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쓰여 있는 것을 보아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단에 계속

(이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시편 82편 6절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서 14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와 자녀나라"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와 자녀나라"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있었던 그 시절이 6000년 전인데, 6000년간 하나님의 자식을 낳았어도 하나만 된다는 게 이치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해야 성경적인 말이 되는 것이지, 자기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이견 비성경적인 말이고, 이단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바에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고 불교를 믿으려면 불경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5.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자백한 예수 그리고 믿음과 말세에 대해서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으면 이미 벌써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했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가 자기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고 마귀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립니다. 신약성경에 맨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생명을 걸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귀당을 그렇게 많이 세웠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한테 충성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진짜 구세주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줄 알고 열심히 믿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기독교에서 믿음이 뭘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는 제대로 알고 있는데, 믿음이 믿는 마음인 줄 비성경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이 믿음인 줄 아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말세가 되도록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말세가 되도록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기독교에서 말세가 언제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역시 말세가 언제인 줄 모르고 예수 당시의 시대를 가지고 말세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 또한 말세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 마귀 세상입니다. 이 마귀 세상이 없어질 때가 말세입니다. 글자 그대로 끝 말(末)자, 인간 세(世)자, 인간의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는 것이 말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름 위로 떠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구름 위에서 있을 수 없는 데도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명



청한 사람이나 속아 넘어갈 수 있었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런 거짓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예수를 믿기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 위에서 잔치를 베풀할 때 올라간다고 해서, 이장님 목사를 위시해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10월 28일 예수가 온다고 그랬던 것이 다 부도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죽은 놈이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었습니까?

6. 불란서에 있는 예수 무덤과 예수 후손의 족보

예수가 불란서로 망명하여 84살까지 살다가 죽은 증거가 있는데, 영국 런던 재판소에서 전부 판결했습니다. 예수 후손들이 불란서에 많이 있는데 예수의 후손들이 증인으로 런던까지 가서 법정에서 손들고 진서를 한 다음에 증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몇 대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할아버지입니다."

"네가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여기 족보가 있습니다."하고 족보를 내놓는 것입니다. 족보를 보니까 몇 대 자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84살까지 살다가 84살 때에 돌아가

셔서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불란서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판사 세 명이 불란서까지 비행기 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비석에 예수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산소를 찾아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로 재판 기록에 전부 비치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몰래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지구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전부 만들어 놓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결할 때 영국의 신부 수녀들이 방청석에 앉았다가 "예수가 로마 병정 판텔라의 아들이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로마병정들의 호위 하에 불란서로 망명을 해서 84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고 판결하니까, 신부들과 수녀들이 까만 옷을 입고 그냥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영국에서 예수교회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구라파 일대에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 바람이 불어서 내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 교회마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한국 나라는 조금 미개한 나라예요 우리 한국 나라는

좀 어두워요. 외국 소식이 아주 캄캄해. 왜 그러나 하면 옛날에 대원군이라는 왕이 쇄국정책을 써가지고 외국인들이 들랑거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외국 소식에 대해서 캄캄한 나라예요. 그 여파로 인해서 봉건사상이 발달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대한 배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소식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조금 짓궂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 찾아갔습니다. 영국 큰 방송이 BBC방송이예요. BBC방송! 그 BBC방송국 기자가 예수에 대한 과거사를 전부 추적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로마 병정 판텔라한테 강간당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파헤쳤습니다. 그렇게 파헤치니까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걸 안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예수가 마귀새끼(예수더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주체가 공중신 마귀, 마3:17, 열2:2, 열6:12, 눅10:18)라는 게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구세주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6면에 계속